

東歐圈 연구도서 너무 빈곤하다

높아진 관심 못따라... 연구인력 육성 시급

지난 연말을 전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사무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설치되고, 그 한달 뒤엔 헝가리 상공회의소의 무역사절이 공식 내한하는 등 동구권과의 본격적 교류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동구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대륙에 대한 최근의 갑작스레 증폭된 관심과 아울러, 그동안 이념의 장막에 가려져 왔던 국가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구권에 관한 일련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연세대 안秉永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동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크게 일기 시작한 것은 동구와의 교역을 겨냥한 경제적 필요성과, 동구를 한국과의 관계에서 非적성화 내지 中性化, 가능하면 友好化까지 시켜보려는 우리측의 정치외교적 욕구에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현실정책적 관심은 학문적 관심을 창출했고 이 방면에 대한 조직적·계속적 연구의 바탕을 마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안교수는 이어 이렇듯 제고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학계의 동구권 연구가 "단순한 시론 및 보고서류에 치우쳐 있다"고 환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굳이 안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동구에의 관심을 충족시킬 만한 국내출판물은 아직도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중국열풍'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중국관계도서의 출판러시에 비한다면, 그 질과 양에 있어 대단히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동구의 소비에트화과정 다룬 책 많아

현재 서점가에 나와있는 동구권 관계도서는 번역서를 포함해 대략 10종 남짓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도서의 반수 가량이 역사, 특히 동구제국의 공산화과정과 관련한 근세 정치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R.F.스타아의 '동유럽공산정치론'(金永來·韓錫泰 역, 민음사, 1985)이다. 이 책은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 공산권 8개국의 역사적 개관과 공산화과정 등을 상세히 해설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각국의 통계 및 연구자료를 동원한 서술의 객관성이 돋보인다. 공산화 이후의 현재 동구제국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등을 분석한 글도 함

께 묶였다.

국내학자들의 저작물로는 「소련 및 동구공산주의」(金學俊·全寅永 공저, 서울대출판부, 1984)를 비롯해, 「소련과 동구관계론」(최동희 저, 종로서적, 1985), 「東歐諸國의 歷史的 形成」(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 박영사, 1986), 「東유럽史」(李貞姬 저, 대한교과서, 1987)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책이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어왔는가 하는 동구의 소비에트화과정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관계론」의 경우, 그에 덧붙여, '독자노선'으로 표현되는 동유럽사회주의의 한계를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이란 대의와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의 모색간에 벌어지는 갈등에서 찾고 있어 흥미롭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의 '공산권연구논총' 제2집으로 간행된 「東歐諸國의 歷史的 形成」 역시 동구제국이 공산화되기까지의 근대정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다만, 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각 시기별로 집필을 분담한 것이 특징이다. 申命淳, 李淑子, 安秉永교수가 각각 1차대전 이전까지, 1차대전부터 2차대전까지, 그리고 전후의 동구정치사를 나누어 집필했다. 또한, 이 책에는 현재 동구제국의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에 대한 宋復, 鄭暢泳교수의 연구논문도 함께 묶였다.

반면, 「東유럽史」는 동구사 전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개설서로 엮어진 책이다. 동독을 제외한 동구 7개국을 단위로 하여, 원시시대에서 공산화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그밖에 '현재'의 동구를 다룬 책으로는 「東歐 政治·經濟·社會論」(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 박영사, 1985) 및 「東西獨體制比較」(볼프강 베어 저, 李永起 역, 고려대출판부, 1988)가 있다. 후자가 현재의 동서독만을 따로 분리해내 그 역사적 정통성과 정치 및 경제체제를 비교분석한 것인데 반해, 전자는 동구일반의 정치문화, 경제체제, 대외무역, 노동문제, 외교정책 등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연구논문을 모았다.

「東歐圈經濟論」(金漢圭 편저, 경음사, 1985)은 경제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유일한 책이다. 주로 코메콘을 중심으로 한 소련과



동구제국간의 경제적 협력 및 마찰을 서술하고 있는데, 다무스의 「동구의 경제적 협력」과 브루스의 「사회주의경제의 기능문제」를 대본으로 참조해 엮은 책이다.

한편, 위와 같이 동구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룬 책들과 함께, 그 문학을 소개하는 책도 몇권 눈에 띈다. 특히, 폴란드문학을 취급한 것만 3종에 이르러 이체로운데, 「폴란드민족시집」(체슬라브 밀로즈 편, 金正煥 역, 실천문학사, 1982), 「아! 폴란드」(제임스 미치너 작, 宋喆復 역, 토담, 1985), 「폴란드문학의 세계」(최건영 편, 남명문화사, 198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아! 폴란드」는 폴란드사를 소재로 한 장편역사소설이며, 「폴란드민족시집」 및 「폴란드문학의 이해」는 폴란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묶은 책이다.

이와는 달리, 러시아를 포함하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전체 슬라브어권에 속하는 동구제국의 방대한 문학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슬라브文學史」(드미트리 치제프스키 저, 최선역, 민음사, 1984)가 나와있다.

'정치적 지역권화' 탈피해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구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물론, 최근의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구제국이 그동안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일종의 절연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앞으로 그 절연상태가 어떤 형태로든 점차 유화될 전망이어서 동구권연구의 외적 제약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있다.

그 첫번째 문제는 동구권연구의 '1차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습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동구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동구권과의 본격적 교류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일반인들의 동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제고된 일반의 관심을 제대로 충족시킬 만한 국내출판물은 태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동구권관계도서는 약 10여종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동구제국의 공산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언어나 문학 등에 대한 보다 광범한 동구권 이해를 제공하는 책의 출간이 기대되고 있다.

으로는 한국의국어대가 유일한데, 그나마도 폴란드어과 및 루마니아어과가 개설된 것이 지난해였고 올해 다시 체코어과, 유고어과, 헝가리어과가 새로 생기는 등 아직 학과의 역사가 일천하다. 따라서, 그동안 동구권 연구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 된다.

두번째는 한국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임흥수간사의 적절한 지적대로, 이제까지의 동구권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지역권화'한 데 따르는 문제가 있다. 즉, 동구제국의 소비에트화라는 정치과정상의 유사성에 집착한 탓에 언어나 문화의 차별상을 비교적 소홀히 취급돼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제 동구제국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을 그들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제도적으로 규제돼 있는 동구권 발행 도서의 수입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강철주 기자